

##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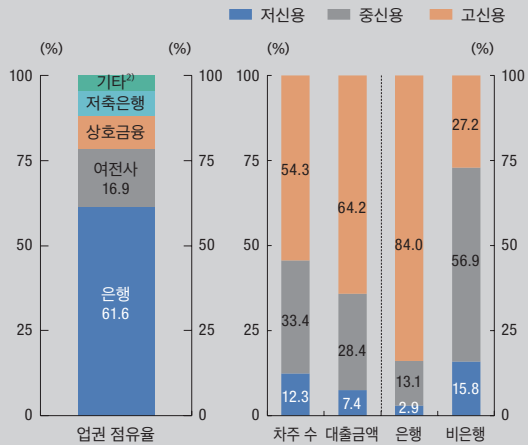
### 최근 가계신용대출시장의 현황 및 시사점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신용대출은 담보없이 차입자의 신용도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일반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가계신용대출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현황

2021년 3월말 현재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304.7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18.3%에 이른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87.8조원으로 가계신용대출 잔액의 61.6%,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51.4조원으로 16.9%를 차지하고 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대부업, 보험회사의 대출잔액은 각각 29.8조원(9.8%), 22.0조원(7.2%), 6.8조원(2.2%), 6.8조원(2.2%)이다. 차주의 신용도별로는<sup>1)</sup> 고신용 차주 수가 전체의 54.3%를 차지하는 반면 대출잔액은 이보다 높은 64.2%를 차지하고 있다. 중·저신용 차주 수의 비중은 45.7% 수준이나 대출금액 비중은 35.8%에 불과하다. 은행의 경우 고신용자대출(84.0%)이 대부분이며 비은행금융기관은 중신용자대출(56.9%)을 주로 취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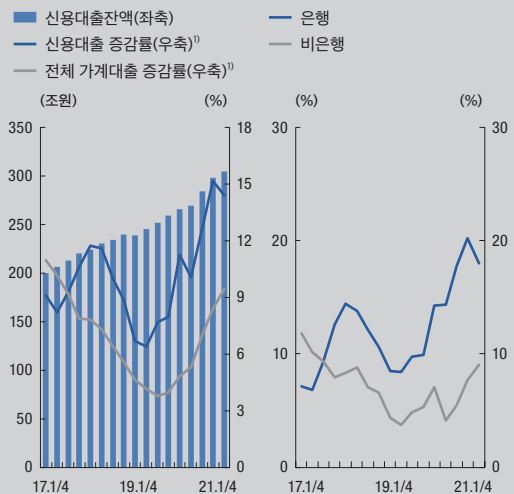
업권별 가계신용대출<sup>1)</sup>      신용도별, 업권별 가계신용대출 비중<sup>1)</sup>



주: 1) 2021년 3월말 기준(대부업 추정)  
 2) 대부업 및 보험회사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대부업 실태조사

2017년 이후 가계신용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10.5%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6.6%)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20년중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신용대출이 15.2% 확대되면서 지난 10년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 가계신용대출 추이      업권별 가계신용대출 증가율<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대부업 실태조사

1) 고·중·저신용 구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 상황> 「1.신용시장 2.가계신용」(19쪽)의 주석 7)을 참조하기 바란다.

##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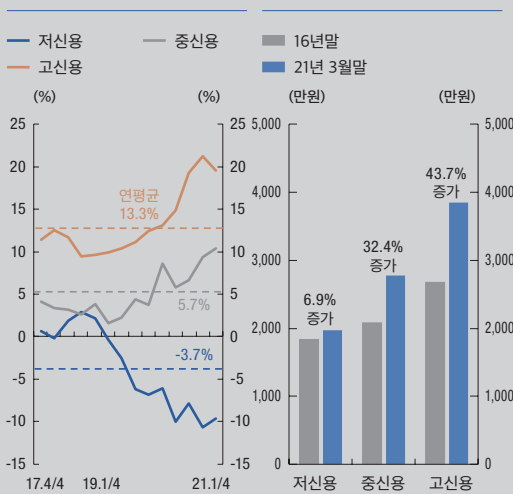
### (은행 중심 고신용자대출 크게 증가)

가계신용대출은 고신용자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 고신용자대출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3.3% 증가한 반면 중신용자대출은 5.7% 증가하였으며 저신용자대출은 연평균 3.7% 감소했다.<sup>2)</sup> 이는 저금리 지속 등으로 차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중·저신용 차주의 상당수가 고신용으로 이동한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3)</sup> 이러한 고신용 차주 증가 효과에 더해 1인당 대출규모의 증가 효과도 있었다. 2017년 이후 1인당 대출잔액 추이를 보면 고신용자의 경우 43.7%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는 6.9% 증가에 그쳤다.

한편 고신용자대출이 은행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은행의 고신용자 대출시장 점유율은 2016년말 83.0%에서 2021년 3월말 85.2%로 상승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대출 증가율이 은행에 못 미치면서 시장 점유율이 2016년말 17.0%에서 2021년 3월말 14.8%로 소폭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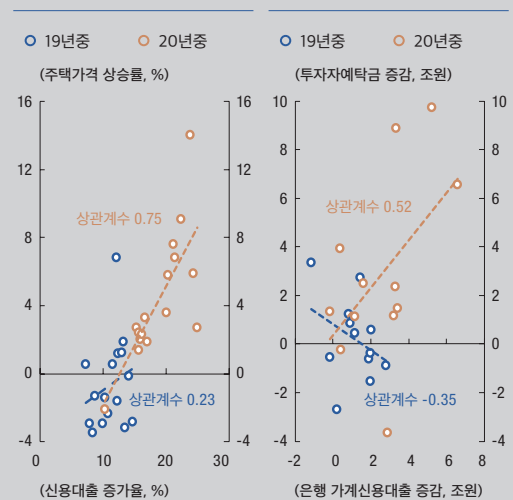
특히 2020년에는 고신용자대출이 예년(17~19년 중 연평균 11.2%)에 비해 크게 증가(21.2%)하였는데, 그 상당 부분은 주택,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신용자의 신용대출이 2020년중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에서 뚜렷하게 증가<sup>4)</sup>하고 있는 데다 은행 가계신용대출과 증권사 고객예탁금 증가액 또한 2020년 들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차주 신용도별 가계신용대출 증가율<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지역별<sup>1)</sup> 주택가격 상승률 및 고신용자대출 증가율



주: 1) 16개 시도 기준(세종 제외)  
2) 월별 증감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부동산원,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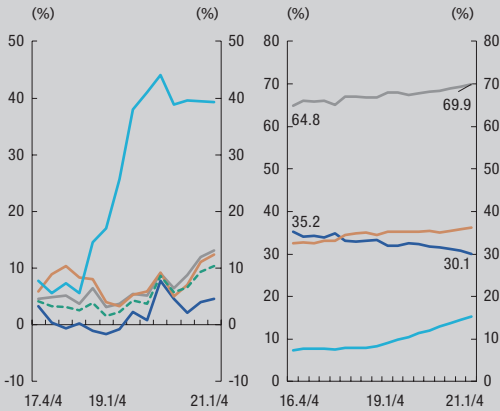
-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신용자(Prime) 차주의 전체 대출금액은 차주 수 증가 등에 힘입어 2017~20년 중 약 18% 증가(실질 기준)한 반면 중신용(Near prime)은 정체, 저신용(Subprime)은 소폭 감소하였다(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21년 5월).
- 가계부채DB 분석 결과 가계신용대출(일반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기준, 한도성 대출은 한도액 기준)을 이용하는 차주 중 2016년말 현재 저신용자의 약 5.0%, 중신용자의 22.8%가 2021년 3월말까지 고신용자로 이동하는 등 고신용자 차주수가 2016년말 대비 연평균 4.1% 증가하였다. 중신용자 수는 2017년 이후 연평균 1.0%, 저신용자 수는 5.2% 감소했다.
-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과 고신용자 신용대출 증가율 간 상관관계수는 2019년 0.23에서 2020년 0.75로 높아졌다. 한편 주택가격 상승률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증가율 간 상관관계수는 2020년중 -0.14이다.

## (중신용자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리단층 지속)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17년 이후 연평균 5.7% 증가)은 비은행금융기관(7.6%)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축은행(25.8%), 여전사(8.4%) 등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sup>5)</sup> 반면 은행은 연평균 1.9% 증가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신용자 대출시장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은 2016년말 64.8%에서 2021년 3월말 69.9%로 상승했으며, 은행의 비중은 35.2%에서 30.1%로 하락하였다.

### 중신용자 업권별 가계신용대출 증가율<sup>1)</sup>

은행, 비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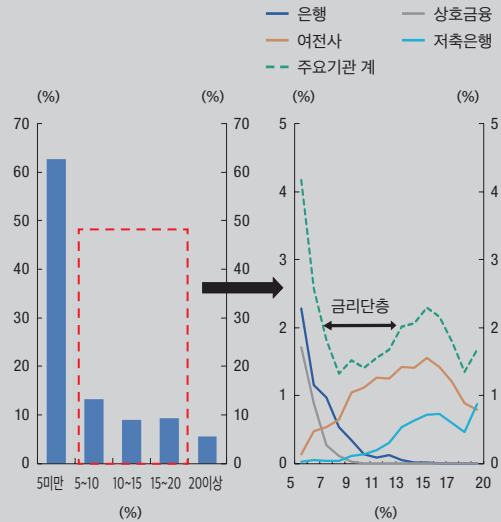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한편 국내 신용대출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제기된 금리단층 현상<sup>6)</sup>은 일부 중신용자 대출금리 구간(연 7~13% 내외)에서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금리구간별 대출비중을 살펴보면 금리 6% 이하와 14% 이상 구간에서 대출 비중이 높고 7~13% 구간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쌍봉 형태를 보인다.

### 가계신용대출 금리구간별 대출잔액 비중<sup>1)</sup>

### 업권별·금리구간별 대출잔액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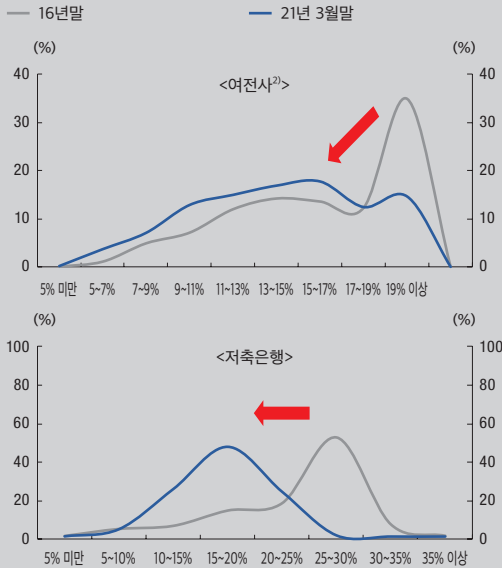
주: 1) 2021년 3월말 기준, 여전사의 경우 카드사 5개 기관, 캐피탈사 3개 기관(여전사 대출 70% 차지) 조사표를 바탕으로 추정,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 제외, 대부업의 경우 20% 이상 구간에 포함, 보험회사는 2021년 3월중 신규취급액을 이용하여 추정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기관 조사표, 대부업 실태조사, 각 협회

금리단층이 지속되는 이유는 해당 대출금리 구간을 주력으로 하는 금융업권 및 상품이 충분하지 않은 데 있다. 은행의 경우 고신용자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신용자대출을 확대할 유인이 약하고<sup>7)</sup> 상호금융의 경우 리스크 관리 부담 등으로 고신용자대출이나 담보대출 취급에 집중하는 실정이다. 한편 여전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저금리 기조, 법정최고금리 인하(18년 2월), 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예전에 비해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차주층 또한 중신용자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모형 고도화가 아직 충분

-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위축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확대 방침에 따라 신용대출을 크게 확대(17년 이후 연평균 23.9%)했으며 여전사의 경우 간편결제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급수단 간 경쟁 심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에 따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론(연평균 8.3%) 등 가계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 연 7~13% 구간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기회 부족으로 중신용자 중 은행·상호금융 이용이 가능한 차주는 5% 내외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차주는 높은 금리(15% 내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 중금리대출 활성화 목적으로 출범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도 고신용자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2021년 1/4분기중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신규취급액 중 고신용자대출 비중은 83.8%로 여타 시중은행(71.7%)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히 뒷받침되지 못함에 따라 중신용자 중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차주나 저신용자대출에 집중<sup>8)</sup>하는 양상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모습이다.

업권별·금리구간별 신용대출비중 변화<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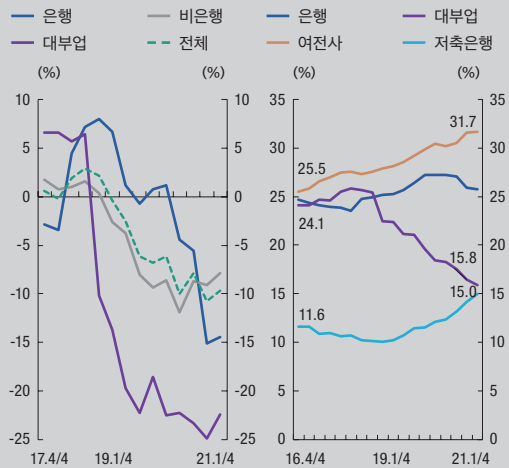
주: 1) 대출잔액 기준  
 2) 카드사 5개 기관, 캐피탈사 3개 기관 조사표를 바탕으로 추정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기관 조사표

(저신용자 대출시장 위축)

저신용자 대출시장은 고·중신용자 대출과 달리 차주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2017년 이후 연평균 3.7% 축소되는 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9)</sup> 특히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대부업 대출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2.7% 감소했다. 이는 두 번(16년 3월, 18년 2월)에 걸친 법정최고금리 인

하 이후 대부업체들의 대손비용 등 대출원가 절감을 위한 중신용 고객 유치 강화, 대부업 철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이 과정에서 여전사,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수요를 일부 흡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 대출시장에서 대부업 비중은 하락(16년말 24.1% → 21년 3월말 15.8%)한 반면 여전사, 저축은행은 점유율이 상승(각각 25.5% → 31.7%, 11.6% → 15.0%)하였다.

저신용자 업권별 가계신용대출 증가율<sup>1)</sup>      저신용자 대출시장 업권별 점유율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금년 7월로 예정된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2020년말 현재 주요 대부업체 중 대출원가율이 15% 이상인 대부업체의 대출비중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대부업 신용대출 금리가 대부분 법정최고금리(24%) 수준임을 감안할 때 최고금리 인하

8) 2021년 3월말 현재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여전사는 66.3%, 저축은행은 84.7%를 대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구 신용등급 4~6등급에 동일 금리를 책정하거나 신용평가사 등급과 관계없이 사실상 법정최고금리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21년 4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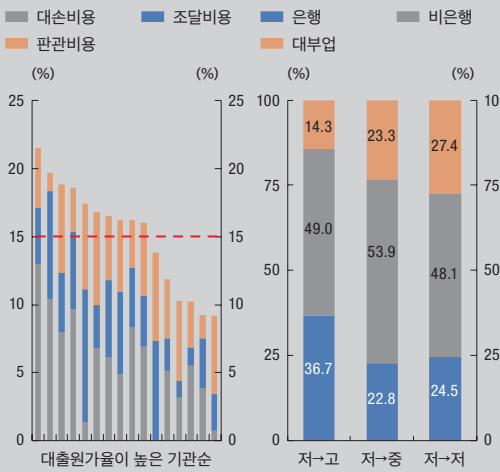
9) 저신용 차주 수는 2017년 이후 연평균 5.2% 감소하였다. 중·고신용자에서 저신용자로 신용점수가 하락한 차주의 1인당 대출금액(21년 3월말 약 2,670만원)이 저신용자에서 중·고신용자로 신용점수가 개선된 차주의 1인당 대출금액(16년말 1,792만원)보다 커서 대출 금액 감소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저신용자에 머무른 차주의 경우 대출이 2017년 이후 연평균 10.3% 감소했다.

10) 일부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으며(산와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 등)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에서 철수(아프로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4 → 20%)시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대출 등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sup>1)</sup>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시장 위축에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은행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신용 차주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차주에 비해 신용등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21년 3월중 신용점수가 개선된 차주는 그렇지 않은 차주에 비해 2016년말 현재 대부업 비중이 낮고 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은행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가 대부업체에 비해 크게 낮아 동 상품이 채무상환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대부업체<sup>1)</sup> 2020년중 대출원가율<sup>2)</sup>      신용점수 개선 여부별 2016년말 대출현황



주: 1) 대출규모 상위 15개 업체 기준  
 2) 대출금액 평잔 대비 조달비용, 대손비용, 판매관리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대부업체 감사보고서

- 11)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며 주요 상품으로는 은행 자체재원을 활용한 새희망홀씨(금리 10.5% 이내, 20년 중 국내은행 3.7조원 공급) 등이 있다.
- 12) 국내은행 잔존만기별 대출비중(21년 3월말 현재)은 다음과 같다.

	6개월 이하	6개월~1년	1~3년	3년 이상
신용대출	41.9%	42.5%	8.3%	7.4%
주택담보대출	6.8%	10.0%	22.6%	60.6%

- 13) 2021년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7.7%로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61.7%)을 상당폭 상회한다.
- 14)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대출상품간 선택권을 높여주는 플랫폼 구축, 금융이력 부족층(thin filer)에 대한 리스크 평가방식 개선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금융위원회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21년 4월)」 등).

## 시사점

최근 상환 능력이 양호한 고신용 차주 위주로 가계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일견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으나 만기가 짧고<sup>12)</sup> 변동금리 방식이 주종<sup>13)</sup>인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금융여건이나 시장금리 변화에 크게 영향받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저하될 가능성을 상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고신용자 신용대출의 경우 상당 부분이 자산 투자에 활용되고 있어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금리단층 현상이 지속되는 가계신용대출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단층 구간의 업권간 중금리대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금융기관과 차주간 정보 비대칭성을 개선<sup>14)</sup>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공급 위축으로 저신용 취약차주의 자금이용 기회가 제약되지 않도록 정책금융상품 활용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